

## 울산시 가족의 현황과 가족정책의 발전방향<sup>1)</sup>

이윤정(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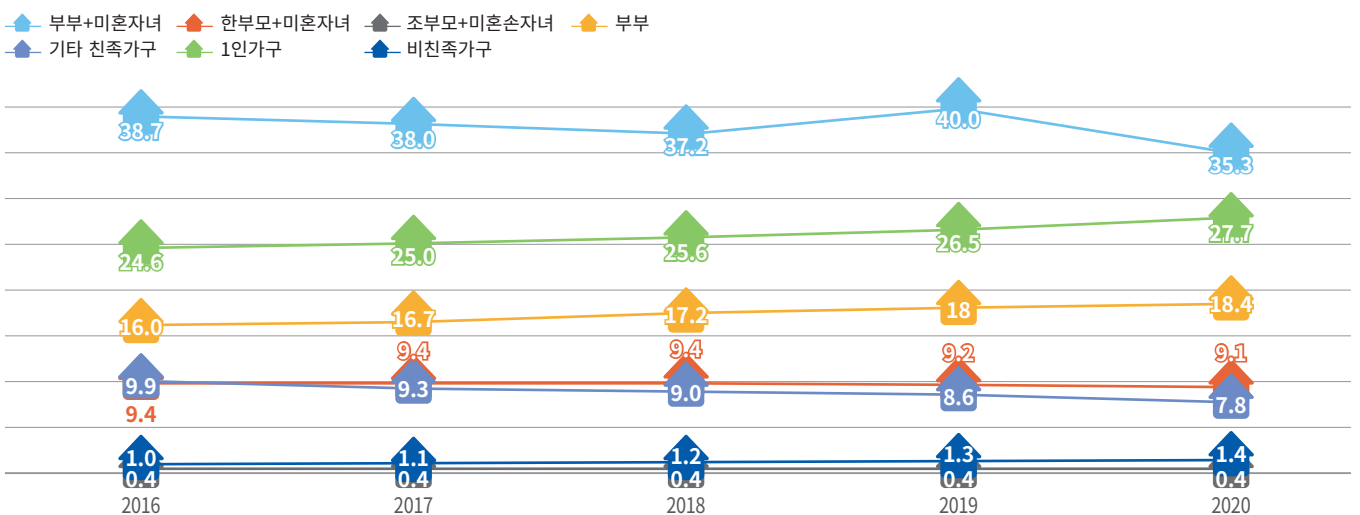
- 과거에는 핵가족 중심의 가정이 보편적이었으나, 현재 재혼, 이혼, 동거, 1인가구 등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돌봄문제 등 사회의 현상은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가족의 구조,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울산광역시의 가족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가족정책의 대상자인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기조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의 가족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책요구를 고려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울산광역시 가족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체감성 높은 포괄적인 가족정책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① 울산시의 가족 현황

#### I 울산시 가구 유형 현황

- 1인가구, 부부가구, 비친족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부+미혼자녀와 기타 친족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미혼자녀가구, 기타 친족가구는 감소하였으나, 한부모+미혼자녀, 조부모+미혼손자녀, 부부, 1인가구, 비친족가구는 증가하였음.
  - 1인가구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절대적인 비중은 낮으나 비친족 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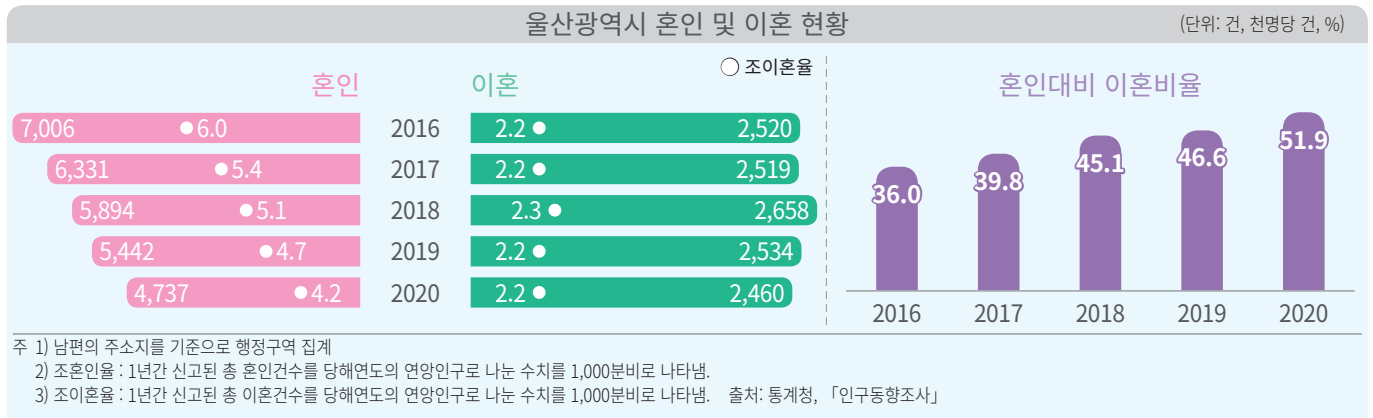
울산시 가구 유형 현황



1) 본 BRIEF 31호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1년 기본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I 울산시 가족의 형성 및 해체

- 울산시 조혼인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조이혼율은 15년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② 울산시 가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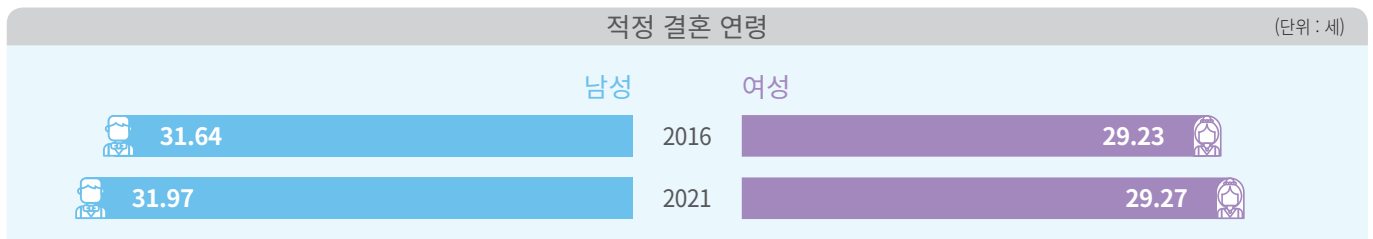
### I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2021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75세 미만의 시민
- 조사 기간 : 2021년 7월 27일 - 8월 10일
- 조사 내용 : 일반적 특성, 가족문화(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돌봄(가족돌봄 및 생활, 가족건강), 일생활균형(일의 영역, 생활의 영역), 다양한 가족, 가족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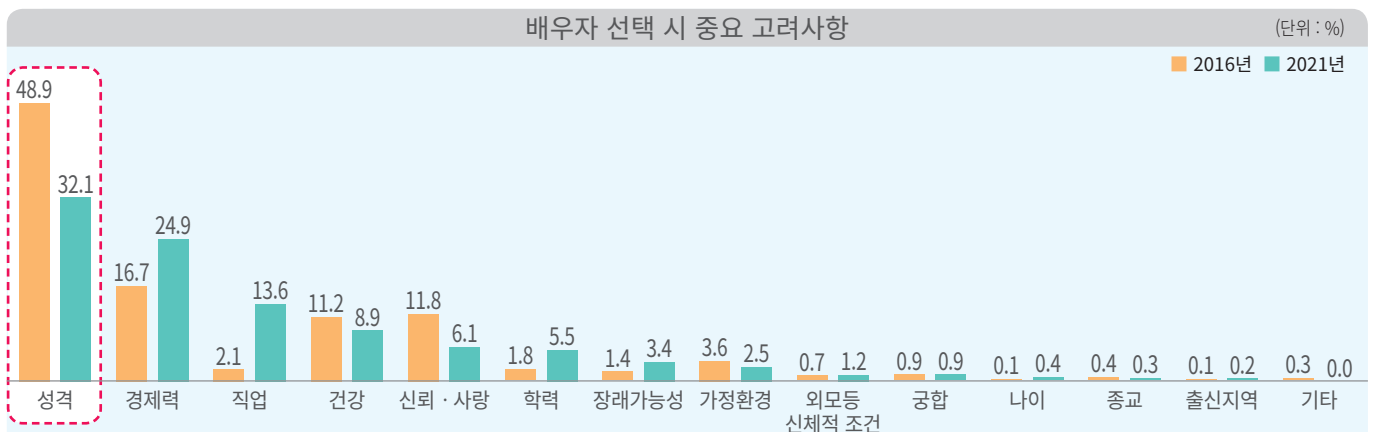
※ 2016년도 본 원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함.

### I 가족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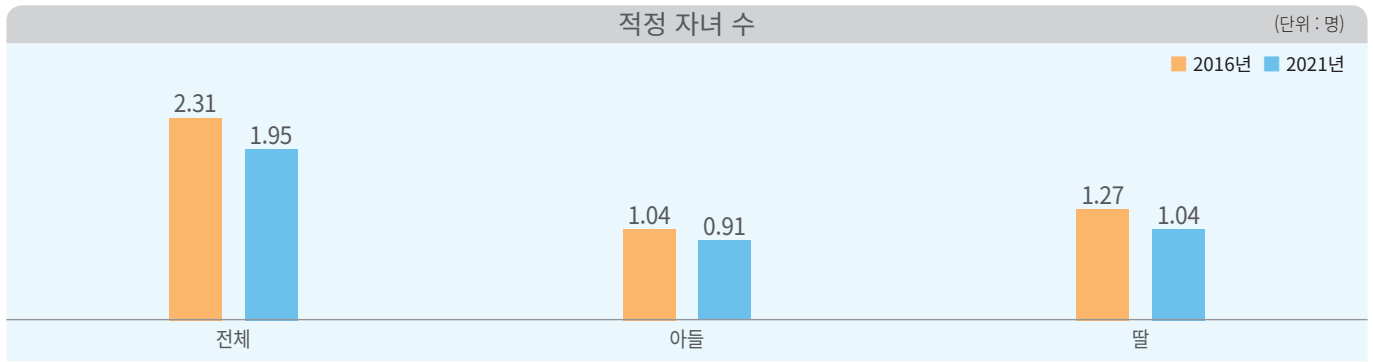
- 적정한 결혼 연령은 남성 평균 만 31.97세, 여성은 평균 만 29.27세임.
- 2016년도와 비교하면 남성은 0.33세 높고, 여성은 0.04세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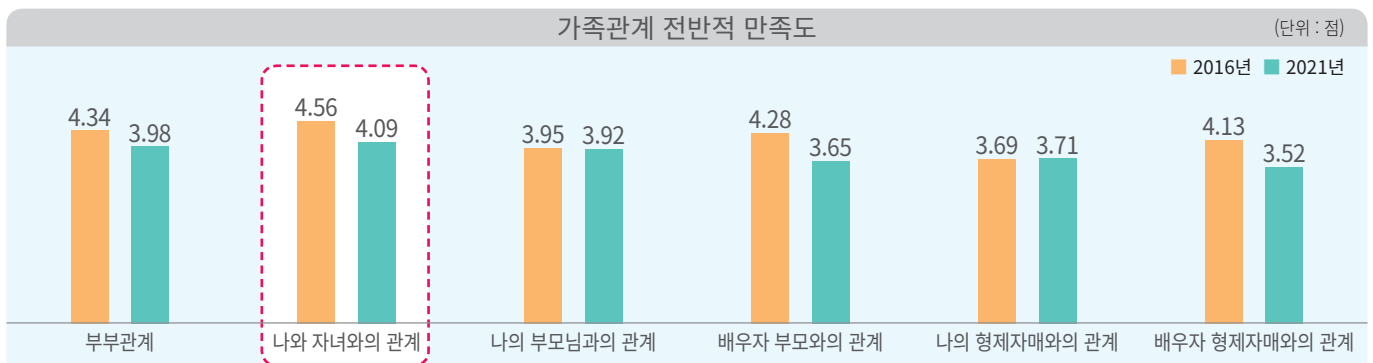
-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격'(3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력' 24.9%, '직업' 13.6% 등의 순임.
- 2016년도와 비교해보면, '성격', '건강', '신뢰·사랑'은 감소한 반면 '경제력', '직업', '학력' 등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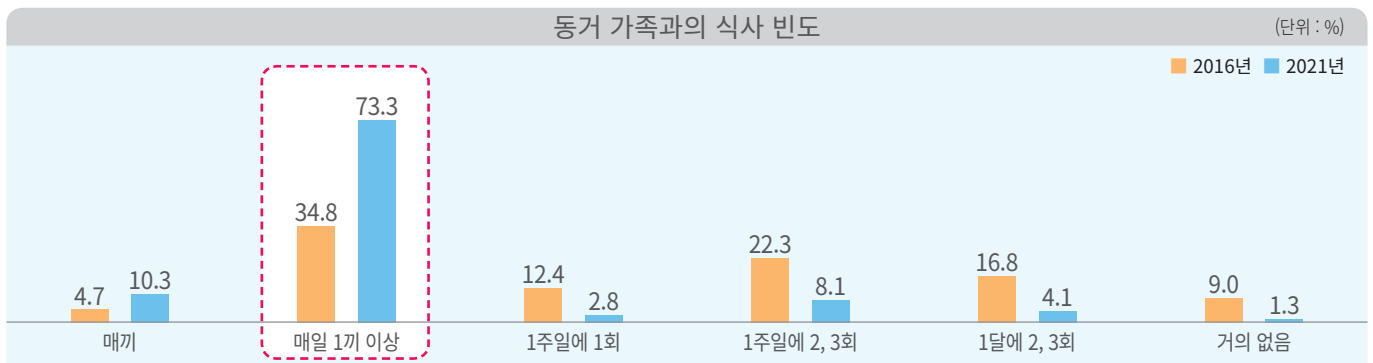
- 적절한 자녀 수는 1.95명, 아들은 0.91명, 딸은 1.04명임.
- 2016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자녀 수는 0.36명 더 적고, 아들은 0.13명 더 적으며, 딸은 0.23명 더 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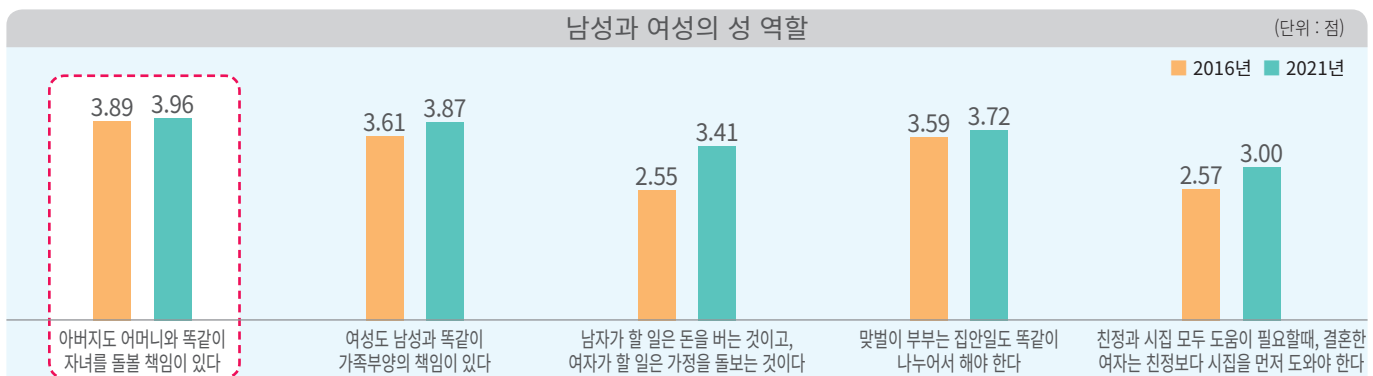
- 가족관계 만족도는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4.0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관계」 3.98점,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3.92점 등의 순임.
- 2016년도와 비교해보면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 근소하게 증가하고 그 외 관계만족도는 모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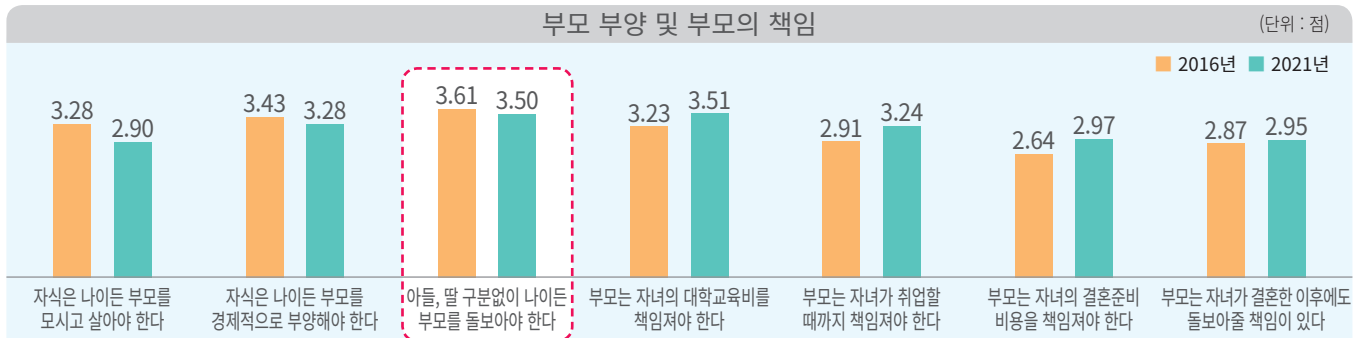
- 함께 사는 가족과 '매일 1끼 이상' 식사하는 비율이 7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끼' 10.3%, '1주일에 2,3회'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도와 비교해보면 '매끼'와 '매일 1끼 이상'이 증가함.



-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생각에서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이 3.9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3.87점,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한다」 3.77점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2016년도와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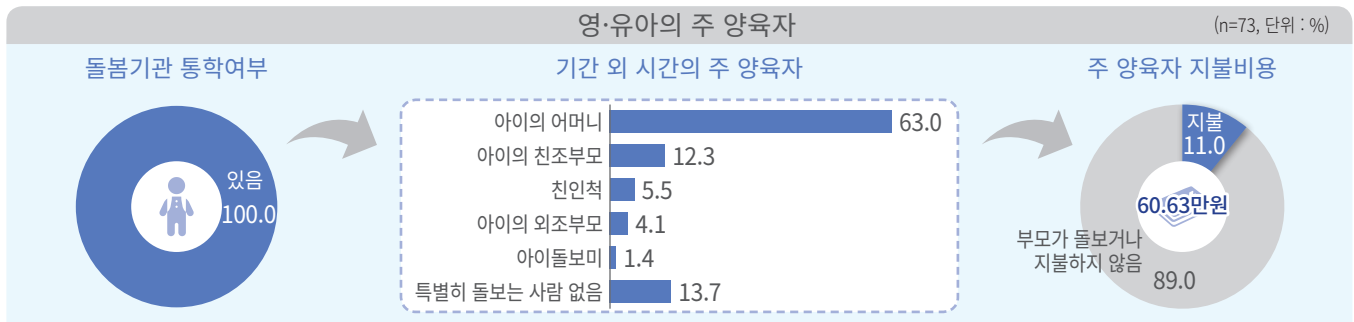


-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서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라는 응답이 평균 3.5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6년도와 비교해보면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아들, 딸 구분없이 나이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는 평균 점수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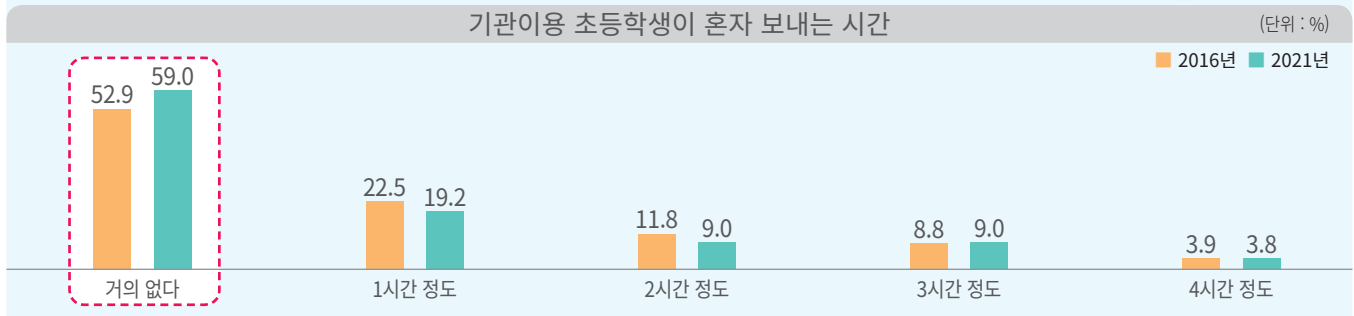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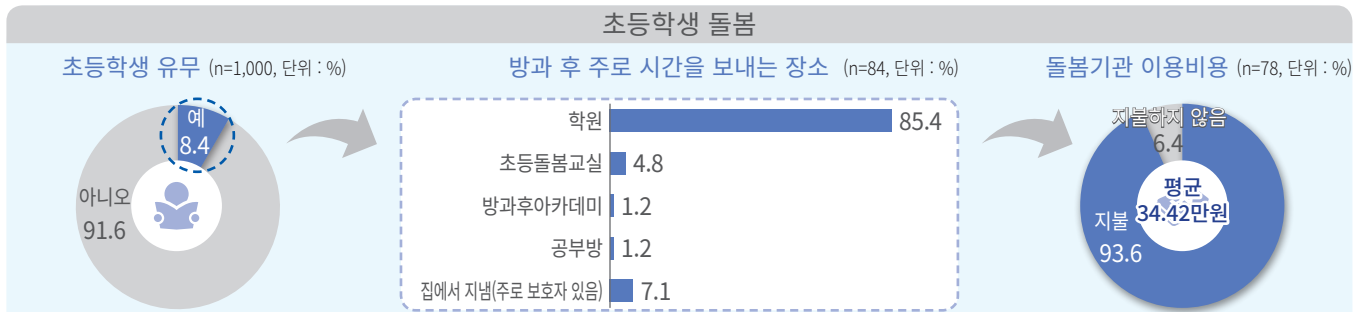


## I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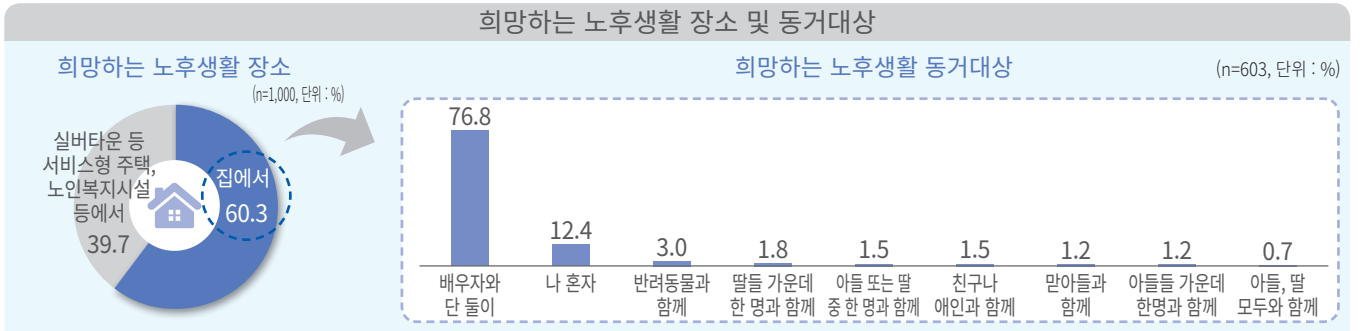
- 가족 중 영·유아가 있는 경우, 주중 낮 시간에 모두 기관을 이용하며 이용기관 종류는 ‘어린이집’ 63.0%, ‘유치원’ 37.0% 순임.
- 돌봄기관에 지불한 월평균 비용은 22.44만 원이며, 돌봄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 63.0%, ‘아이의 친조부모’ 12.3%,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13.7% 등임.



- 가족 중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가 방과 후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학원’ 85.7%, ‘초등돌봄교실’ 4.8%, ‘집에서 지냄(보호자 있음)’ 7.1% 등임.
- 돌봄기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해당 기관에 월평균 지불 비용은 34.42만 원임.
-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중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거의 없다’가 5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시간 정도’ 19.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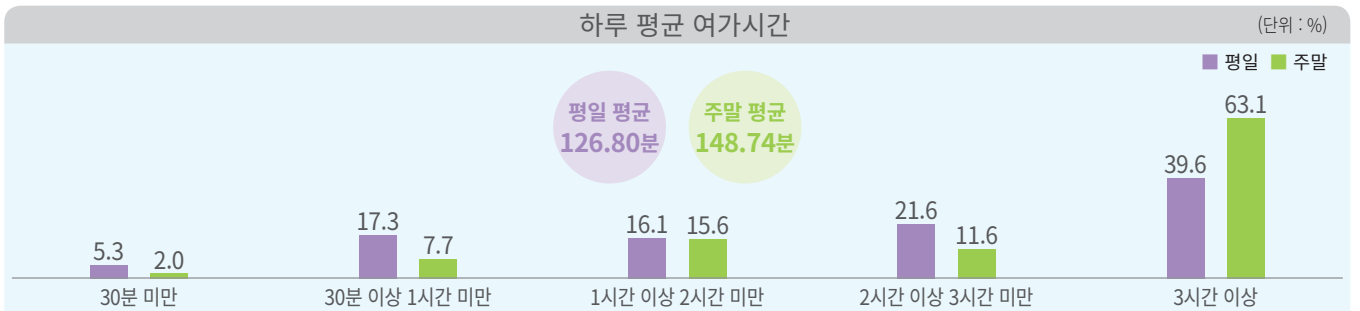


- 노후를 보내고 싶은 장소로 선호하는 곳을 살펴보면, ‘집에서’는 60.3%,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는 39.7%로 나타남.
- ‘집에서’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함께 지내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면, ‘배우자와 단둘이’가 7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 혼자’ 12.4%, ‘반려동물과 함께’ 3.0%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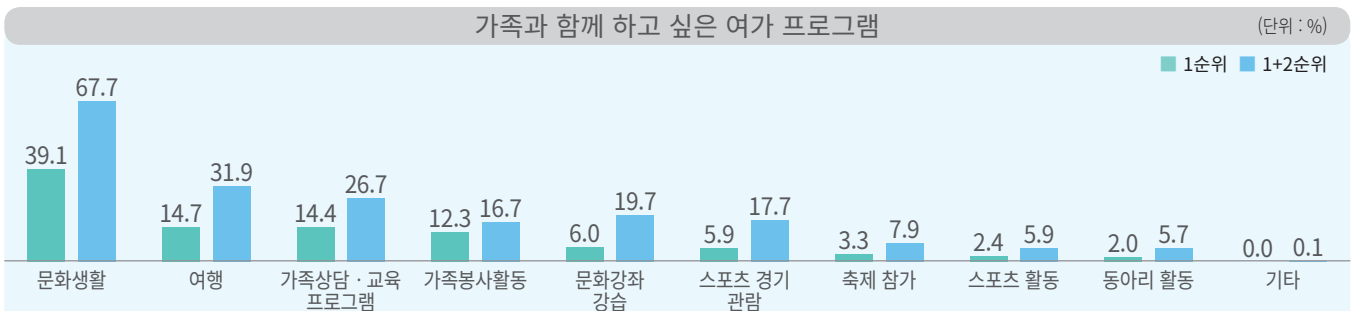


## I 일·생활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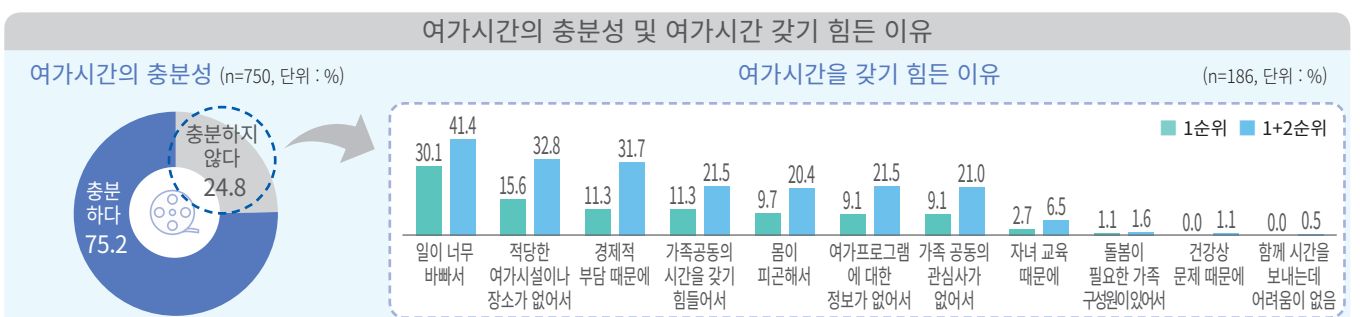
-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시간 이상’이 39.6%, 주말은 63.1%로 가장 많음.
- 여가시간은 평일 126.80분, 주말 148.74분으로 나타남.



-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가 프로그램은 ‘문화생활’(3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행’ 14.7%, ‘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2016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행’, ‘스포츠 활동’의 비율은 줄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늘어남.



- 최근 6개월간 가족과 함께 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가 75.2%, ‘충분하지 않다’는 24.8%로 나타남.
-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경우 가족과 여가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일이 너무 바빠서’(30.1%),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15.6%, ‘경제적 부담 때문에’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③ 울산시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